

출장결과

I. 출장 개요

1. 출장목적

- 동북아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은 한국(KREI, 부산대학), 중국(중국 농업대학, 길림농업대학), 일본(토야마대학, 동경대학, 가고시마대학) 등 3국이 공동 개최하며, 비용은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.
- 제9회 심포지엄은 일본 가고시마대학이 개최하며, 3국 모두 가장 열악한 밭농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하여, 현지 견학, 주제 발표, 토론 등을 통하여 3국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임.

2. 출장자

- 김태곤 농업발전연구부 연구위원

3. 출장지역 및 기간

- 지역
일본 가고시마현(鹿児島県), 가고시마대학
- 기간
2012년 11월 4(일)~8일(목) 4박5일

4. 조사항목

- 가고시마 지역의 밭농업경영의 실태
- 직불제 실시동향
-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 등

5. 방문기관 및 면담자

☐ 가고시마대학

토미나가 시게토(富永 茂人) 농과대학 학장
이와모토 이즈미(岩元 泉) 농업경영경제학과 교수
이 재현(李 哉炫) 농업경영경제학과 준교수
유타카 마사유키(豊 雅行) 농업경영경제학과 준교수

☐ 시부시시(志布志市)

혼다 슈이치(本田 修一) 시장
쿠로가와 아키라(黒河 晃) 기획정책과 브랜드추진실 계장

☐ 미나미큐수시(南九州市)

사메지마 노부유키(鮫島 信行) 농림수산부 차산업과장

☐ 호리구치제차(堀口製茶)유한회사

호리구치 야스히사(堀口 泰久) 대표

☐ 농업생산법인 주식회사 사카우에(坂上)

사카우에 다카시(坂上 隆) 대표

☐ JA가고시마현경제련

나가하타 요시로(中畠 善郎) 농산사업부 미곡특산과 조사역
코미야 유우세이(小宮 裕生) 농산사업부 미곡특산과 과장

☐ 동경대학

안도 미츠요시(安藤 光義) 농학생명과학대학 준교수

☐ 토야마대학

사카이 코미오(酒井富夫) 경제학부 교수

☐ 중국농업대학

주 준펑(朱 俊峰) 경제관리학원 교수

6. 조사일정

일 정	방문기관	업무내용
11.4(일)	출국(인천~가고시마(鹿児島)) 이동(가고시마~시부시시(志布志市)) 사전회의(18:00~20:00) 시부시 시장 면담	○ KE 785(13:00~14:35) ○ 버스 ○ 시부시시 ○ 숙박: 시부시시
11.5(월)	현지견학 시부시시(10:00~12:00) 호리우치제차(13:30~14:30) 주식회사 사카우에(15:00~17:00)	○ 시부시정 농업개황과 주요정책 ○ 기업의 농업경영 사례 ○ 농사조합법인의 농업경영 사례 ○ 숙박: 도미인 가고시마(099-216-5489)
11.6(화)	현지견학 키쿠나가차생산조합(10:00~12:00) 이동(미나미큐슈~가고시마)	○ 협동조합의 농업경영사례 ○ 버스 ○ 숙박: 도미인 가고시마(099-216-5489)
11.7(수)	직불제에 대한 의견청취(10:00~) 심포지엄(13:00~18:00) “동북아 발농업의 발전전략” 가고시마대학(鹿児島大学)	○ 호별소득보상제도 ○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등 ○ 주제발표: 한국의 농가소득문제의 심화양상과 정책과제 ○ 숙박: 도미인 가고시마(099-216-5489)
11.8(목)	이동(가고시마~후쿠오카) 귀국(후쿠오카~인천)	○ 열차(10:00~13:00) ○ KE 790(15:40~17:10)

II. 출장 결과

1. 심포지엄 주제 발표

☐ 발표주제

“한국의 농가소득문제의 심화양상과 정책과제”

☐ 요지

- WTO 체제 하에서 FTA에 의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동시에, 농업보호의 제약 속에서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소득문제의 심화가 농정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.

- 소득문제 해결은 동북아 한중일 3국의 공통된 과제이다. 3국의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.
 - 일본은 도시근로자 소득 정체, 농가소득 감소, 그리고 도농간 격차 확대로 심화하고 있다. 중국은 도시와 농가 소득 증가, 도농격차 확대, 농가계층간 격차 완화 등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.
 - 반면에 한국은 농가소득 감소, 도농간 격차 확대, 그리고 농가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.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.

- 한국의 소득문제 양상은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(2011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9% 수준으로 하락), 농가계층간 소득격차(5분위배율)가 확대되고 있다(2010년 12배)는 점이다. 참고로 중국은 10배(2009~11년 평균) 정도이다(중화사범대학 중국농촌연구원 조사결과. 2012. 8).

- 도별 소득추이를 보면, 제주, 경남, 경기, 강원이 상위 그룹이다. 경남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. 전북, 충북, 충남, 경북이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, 경북이 2년 연속 하락하여 최하위를 기록하고, 그 다음이 충남으로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.

- 최하위 경북의 최근 3년간(2009~11년) 부문별 농업소득 감소실태를 살펴본다. 부문별로 농업소득의 상위 5개 농가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.
 - 수도작은 평균 39% 감소, 최대 98% 감소
 - 과수작은 평균 62% 감소, 최대 126% 감소
 - 채소작은 평균 15% 증가, 최대 15% 감소
 - 축산은 평균 54% 감소, 최대 75% 감소

- 소득문제의 발생요인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.
 - 글로벌화 : 수입국의 항상적인 농산물 수입증가
 - 농업구조 : 영세·분산 농업구조, 인력·농지 등 농업자원의 축소
 - 농업경영 : 단작화에 의한 고리스크형 농업경영, 노동투입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임소득 감소
 - 기상이변 : 기상재해 및 가축질병 빈발 등

○ 과제(한국의 과제, 동시에 동북아 공통의 과제)

① 경영면에서의 접근

- 단작경영에서 다각경영으로 전환
- 노동집약부문의 도입
-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

② 농업구조면에서의 접근

- 지역성 조직화(마을영농, 커뮤니티비즈니스)
-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(소규모사업체, 2012. 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)

③ 정책면에서의 접근

- 위험회피형 정책 강화(직불제, 재해보험, 경영방식 전환)
- 복지농촌정책 도입(복지정책, 산업정책, 공간정책을 통합하는 정책)

④ 마을자치센터 제안

- 마을단위(1~3개 행정리 또는 읍면단위)에서의 복지농촌정책을 추진하는 거점 또는 주체
-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,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창출·생활편의 제공·자원관리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

2. 현지 견학

(1) 호리구치제차(堀口製茶) 유한회사(대표 호리구치 야스히사(堀口 泰久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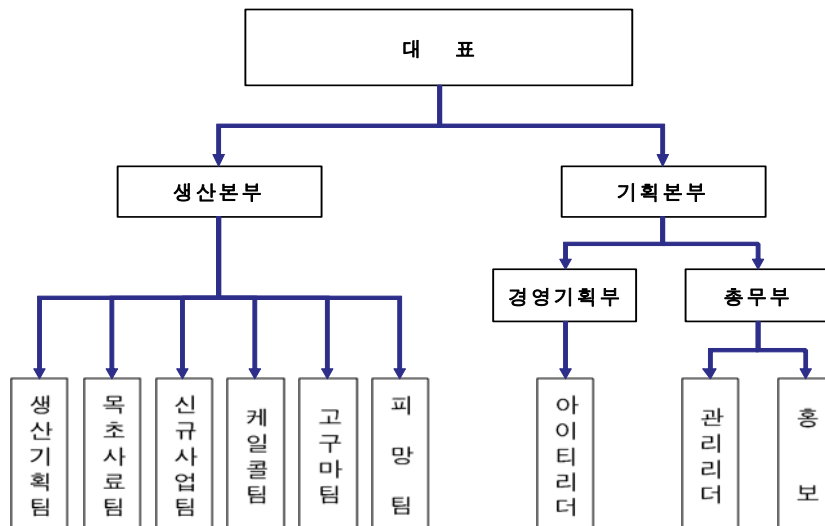
- 녹차의 생산, 가공 기업
- 차 생산은 자작지 120ha, 인근 계약농가 120ha 등 총 240ha 생산·가공
- 황차(荒茶)를 생산, 차 도소매업자에게 판매
- “환경과 고향을 소중히 한다”를 모토로 지역사회에 공헌

(2) 농업생산법인 주식회사 사카우에(坂上)(대표 사카우에 다카시(坂上 隆))

- 지역에서 대표적인 밭농업 경영체
- 자작지 2ha, 임차지 90ha 등 92ha 경영
- 종업원 44명

- 채소(감자, 고구마, 피망, 상추, 양배추, 브로콜리 등)
- 농지는 평균 1필지 25a, 360구획으로 분산
- 불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지별로 농작업을 일지화, 전산화
- 신규작물개발사업, 계약재배사업, 목초사료사업 등을 중시
- 청년 인재육성에 기여

그림 1 사카우에의 조직도



(3) 카쿠나가차영농조합(菊永茶營農組合)

- 조합원 34농가, 150ha 차생산·가공
- 농기계·가공시설 공동이용으로 조합원의 경영비 절감
- 공동정산방식 도입

3. 품목별 경영안정대책

- 2011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호별보상제도는 쌀 소득보상직불제(논), 논활용 소득보상직불제(논),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(밭, 논) 등 3가지 직불제로 구성
 - 예산 : 9,000억엔
 - 대상작물 : 쌀, 밀·보리, 대두, 감자, 메밀, 유채, 사료작물, 신규수요쌀(사료용 쌀, 가공용 쌀, 가루용 쌀), 청벼 등
- 이상의 작물 외에, 특정지역에서 주요한 소득작물인 사탕수수(가고시마현, 오키나와현), 사탕무(홋카이도), 전분용 고구마(가고시마현)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으로 소득을 보전,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음.

그림 2 사탕 가격조정제도의 개념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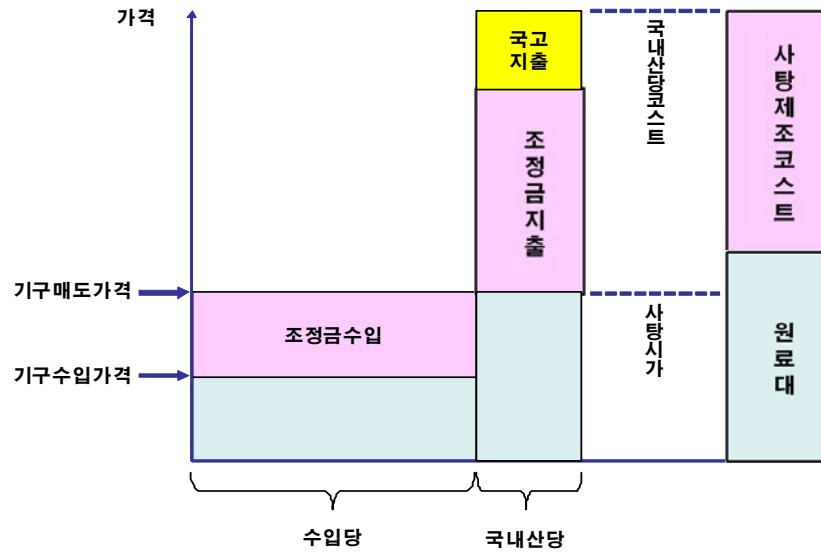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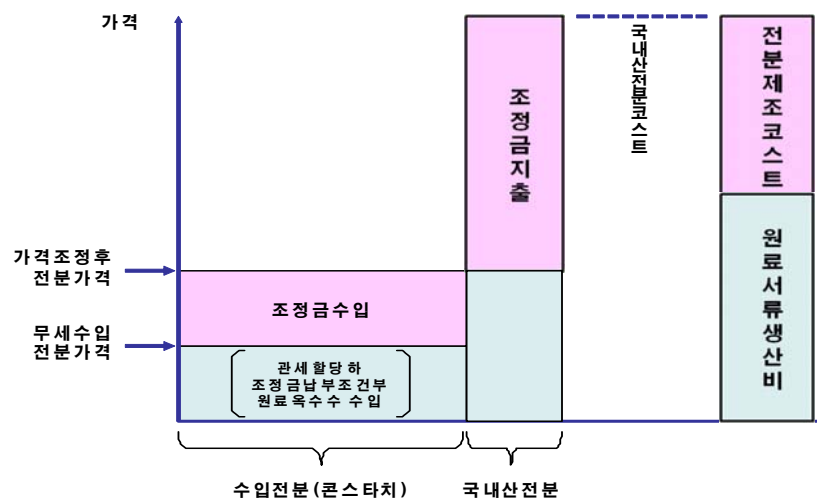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전분(고구마) 가격조정제도의 개념도



4. 향후 계획

- 2013년의 제10회 대회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특별 심포지엄 형식으로 개최함.
- 중국농업대학이 주최하되, 시기와 장소, 주제,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3개국간 협의하여 결정함.

(이상)